

하인즈 워드와 국수주의

문화향기

김강

호남대 교수



미국인에게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무엇인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다수가 '미식축구(American Football)'라고 답할 것이다.

광활한 서부를 일군 우직한 힘과 웅망스러운 돌파력을 연상시키는 일종의 '땅따먹기' 경기처럼 보이는 풋볼은 미국사의 원동력인 '개척자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스포츠이기에 그에 대한 응원도 어느 경기와 달리 특별하다.

미국 유일의 전국일간지 USA TODAY의 스포츠 뉴스에는 시즌인 9월부터 11월, 그리고 이어 최종결승전인 '슈퍼볼(Super Bowl)'이 열리는 이듬해 1월 말까지 매일같이 풋볼에 대한 최신소식이 실리며, 평일 오후나 휴일에 동네 공원에서 풋볼 공을 던지고 내달리는 어른과 아이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 덕분에 프로야구팀 유니폼과 함께 풋볼 유니폼은 미국사람들이 흔히 입고 다니는 레저 의류 중의 하나로 자리 잡은 지 이미 오래다.

게다가 그 각별한 인기만큼 전미프로 풋볼리그(NFL) 슈퍼볼에서 최우수선수(MVP)를 누가 받았느냐에 대한 관심이 우승팀에 대한 충성으로 뜨겁고 치열하다.

2006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한국계' 혼혈인 하인즈 워드가 MVP를 차지한 것이다. 그가 절반은 한국의 피를 지녔다니 놀랍고도 축하할 일이었다.

아시아에 한류열풍이 거세게 불고 시작한 마당에 보태어 세상의 우수한 여러 인종이 모여 산다는 미국에서 한국 혈통의 선수가 미국 대중스포츠 우승으로 떠올랐기에 국내 언론의 관심과 호들갑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이후 워드 모자는 장원급제 급의환향

격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아니 우격다짐 몰고 온 듯하다. 그들의 모국 방문이 한국의 '선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가슴 아픈 고향과 추억을 더듬어볼 수 있는 '소박한 귀향'이 되었는지는 그들만이 알뿐이다.

워드 열풍과 관련하여 나와 남을 가르는 우리의 정서에 대해 생각해보자. 연일 노래와 음식 등 감각적 K-Culture가 글로벌 대세라는 '셀프 국뽕' 기사가 만연하는 이 시기다.

먼저 이 시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은 과연 '어떤 조건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성공한 사람에게 찬사가 물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지만 워드의 경우는 정도가 지나친 듯하다.

그가 슈퍼볼에서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상을 받기 전만 해도 우리는 그의 존재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미 언론에서 풋볼선수로서 워드의 활약상에 대해 이미 수 차례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와 그를 키운 어머니의 인생 역경에 아무런 관심도 동정도 이해도 없었다. 워드가 '미국' NFL 영웅으로 다시 탄생한 바로 직후 그는 '번개'처럼 한국의 별이 되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뉴욕한국문화원 관계자는 한국계인 워드가 맹활약한 것은 국가 브랜드홍보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그가 비록 '미국인'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예우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워드에 대한 체육훈장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명예 시민증을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민국 정부답게 자발스러웠다.

이 같은 우리의 '오버'에 대해 진중권 교수는 혼혈인을 차별하던 '인종주의적 융졸함'이 미국 시민까지 한국인으로 예우를 해주자는 '국제주의의 통 큰마음'으로 돌변한 것은 "역술하면 출세하라는 독특한 한국식 인생철학의 표현"이라고 일갈했다. 통렬한 일침이다.

워드가 미국에서 자랐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에 굴복하여 마약이나 폭력 같은

범죄에 빠졌다면 그 누구도 흑인 혼혈아에 불과한 그에게 주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성공신화만 추구할 뿐이며 정작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은 대체로 외면하며 살아왔음을 워드의 성공 신화에서 깨달아야 한다.

다음으로, 워드가 혼혈임에도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만일 워드가 한국에서 자랐다면 오늘날처럼 그가 미국 전체에 알려지고 피츠버그시 전체를 환영의 도가니로 볼 수 있는 미국 최고의 풋볼영웅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문해본다.

피부색은 물론 외양과 생각에 최소한 차이가 나도 왕따로 소외시키는 우리의 비정한 현실을 마냥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수치스러운 것이다. 우리보다 피부가 검어서 검둥이,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못난 인종차별을 누가 부정할 수 있으며, 이런 풍토에서 워드가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모를 일이다.

워드의 성공은 이민자일지라도 노력하는 이들을 키우고 포용하는 '관용적 사회'가 그곳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정착의 경도에서 구시대에 기인한 갖가지 사회 병폐적 불평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

일례로 세익스피어도 이미 400여 년 전 피부색과 종교가 다른 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리고 그 자신도 동시대인으로서 그같은 비인간적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오셀로'와 '베니스의 상인'과 같은 작품에서 이미 역설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다문화인, 혼혈아, 입양자, 비정규직 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의 중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기에 우리의 토양은 여전히 부실하고 척박하다. 상대를 권력이나 소유의 정도로 평가하지 않는 휴머니즘의 세상을 만들어가자. 나도 혹시 '사회적 근친자'와의 유리한 관계 속에 평생을 안주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또다시 반성해본다.

社說

반가운 광주의 '책 읽는 도시' 육성 의지

독립서점·도서관 등 지원 해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를 '책 읽는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독립서점·지역출판·도서관 활성화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전일빌딩245에서 '책과 문화는 광주의 힘, 세계로 나간 한강과 소년들'을 주제로 시민들과 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대화는 다음 달 10일 열리는 노벨상 시상식을 기점으로 광주지역이 책 읽는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정작 광주시는 책·문학 생태계가 열악하다는 의견들이다. 광주의 한 작은 서점 대표는 "도시엔 책 문화가 얼마나 정착했는지를 보려면 도서관과 책방을 살펴봐야 한다"며 "지역 화폐, 쿠폰, 할인 등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직접 사보는 경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한 중학교 학부모도 서회장은 "광주시 등이 '이달의 책'을 지정하면 책을 읽는 동기 부여가 된

다"며 "함께 책을 읽은 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길이 열리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책 읽는 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 추진체계(컨트롤타워) 구축, 작가, 출판사, 독자, 도서관, 서점 등 도시의 책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역의 독립서점은 물론이고, 지역출판과 도서관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광주가 책 읽는 도시로 나아갈 수 없다는 의견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날 나온 많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광주시가 향후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다는 점이다. 우선 '책을 많이 사고, 많이 읽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광주인문르네상스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광주인문르네상스(가칭) 조성, 독립서점 활성화, 2026년 전국도서관 대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광주시가 '노벨상의 도시'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통해 지역내 책·문학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책 읽는 도시 육성은 도시 경쟁력뿐 아니라 '제 2의 한강'을 배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벤치마킹 필요한 동구 '예술로 치매예방'

다양한 창작활동 기회 필요해

광주 동구가 마련한 지역주민들의 창작 드로잉 작품전이 5일부터 시작됐다. 고령화사회, 창작 활동을 통한 치매 예방뿐 아니라 고령층의 심신 안정에 도움을 주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2022년 기준, 광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1만 7446명으로 이 가운데 치매환자는 2만 2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일상화된 치매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 예술을 통한 치매 예방이라는 동구의 선제적 대응이 미덥다.

광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지난 2005년 7%에서 2021년 14%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오는 2029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는 치매의 가장 큰 위험인자다. 실제 광주의 치매 환자는 해마다 급격히 늘고 있다. 이와 달리 4차 산업화와 핵가족 등 사회적 변화는 치매 환자 돌봄의 중심인 가족의 기반을 갈수록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직접 부양 부담도 크다. 노인성 치매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일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인 셈이다.

그렇다고 치매를 두려워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치매는 습관에서 나오는 질병으로 단란한 가족이 있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취미활동을 즐기는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전문가들도 우뇌와 좌뇌를 골고루 사용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입을 모은다. 논리적 사고와 수리 계산 등을 담당하는 좌뇌와 달리 우뇌는 정서에 관련돼 있어 문화 예술 등 창작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예방이 최선인 치매의 특성상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이야말로 치매를 넘어서는 최선의 대응책이다.

노인인구 증가는 치매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 각 자치구는 동구를 벤치마킹해 주민들의 치매 예방을 위한 혁신적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으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문화예술활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도 키워낸다.

서석대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권이 전시돼 있다. 이름은 '집조(執照)'로 구한말 대한제국에서 사용했던 여권이다. 집조는 국경을 넘어 출국을 확인하는 조선시대 문서로, 대상자가 국경을 통과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이 3개 언어(한문, 영문, 불문)로 인쇄돼 있다.

발급일, 인적사항, 출발지와 도착지는 대상자에 따라 수기로 작성했고, 외부(外部: 외교부)와 발급요청기관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형태는 낱장의 종이로 상단에는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오얏꽃 무늬가 찍혀 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여권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12월 해외여권규칙에 따라 여권 발급 업무를 시작하면서 등장했다. 참고로 현재 보관되고 있는 가장 오래된 대한민국 여권은 1951년 이흥종 대위가 발급받은 여권이다. 또한 백남준이 부친 백낙승을 따라 1949년 홍콩으로 도향(渡香)하면서 쓴 여권 번호는 7번이었다고 한다.

일반인들의 여권 발급의 자율화는 1961년 여권법 제정이후다. 하지만 당시 가난했던 형편상 해외여행은 대중화되지 못했고, 정부도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을 제한하기도 했다. 주로 해외 업무를 하는 기업인들이 여권을 발급받았다.

1990년 이전 군부시절 때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



공연행의 반공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5·18 민주화운동 등의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좌파 세력에 연관 또는 연루됐을 경우 여권 발급조차 거부됐다고 한다.

서울 올림픽 개최이후 1989년 해외여행이 전면 자유화됐고, 올해 내국인 해외방문객수가 3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방문객 수가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해외 방문객이 늘면서 여권도 진화했다. 사진 부착형에서 전자여권으로 바뀌면서 해외입국 문턱이 더욱 낮아지고 있다. 지난 7월 공개된 '헨리 여권 지수' 2024 세계 순위에서

보면 당시 기준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191곳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과 공동 3위였다.

최근엔 중국도 빗장을 풀면서 192곳 무비자 여행이 가능해진 국가가 됐다. 내년 말까지 최대 15일간 비자없이 중국에서 체류가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도 2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전 세계에 한국처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곳은 많지 않다. 이는 한국의 국가 지위나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자랑거리가 아닐까 싶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